



신봉가족 설가정에배



복음의 빛이 되게 하소서

(창세기 1:28, 이사야 65:25)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봉교회

37221 경북 상주시 상산로 97 ☎ 054) 534-2910



설 가정예배 순서지

인도 : 말 은 이

예 식 사 집 례 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설 가정예배를 드리며 새해의 다짐을 되새기고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01장 다 같 이

-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야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절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가족 중에서 말 은 이

성 경 봉 독 시편 25:12-14 다 같 이

¹²⁾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
치시리로다 ¹³⁾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
속하리로다 ¹⁴⁾여호와와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말 씀 설날에 누리는 하나님 은혜 말 은 이
기 도 말씀나눔이
찬 송 595장 다 같 이

- 1절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민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이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
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
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
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나눔〉

설날에 누리는 하나님 은혜 (시편 25:12-14)

2025년을 시작하고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이전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敬畏)하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은혜는 택할 길을 아는 은혜입니다. (12절)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 까?’라는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등 인생의 중요한 문제까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따라 인생의 행복과 불행, 더 나아가 복과 저주로까지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바른길을 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좋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13절)

물질보다 그리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들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돌봄과 채움을 받지 못한다면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한이 없는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14절)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친밀한 사람들과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약속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봉의 가족 여러분! 혼란한 정세 가운데 맞는 설 명절,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봉의 모든 가족에게 베풀어주시는 그분의 크신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